

‘송송’·‘봉봉’이와 산책하며 우리동네 지켜요

광주 첫 ‘반려견 순찰대’ 동행해보니

“우리 동네 치안은 ‘반려견 순찰대’에게 맡겨주세요.”

반려견 순찰대라고 적힌 야광조끼를 입고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광주시 북구 문화근린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때의 눈(?)으로 동네를 살피며 가로등, 도로와 같은 시설물 파손이나 주취자 신고 등 방범 활동을 벌이는 봉사자들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에서 처음으로 꾸려진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희(광주시 동구 산수동·여·35)씨와 모친 박양애(64)씨를 만났다. 이들은 ‘순찰’을 위해 반려견 ‘송송’, ‘봉봉’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

반려견 순찰대는 (사)유기견없는도시가 만든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동네를 다니며 수상한 인물이나 상황을 신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순찰 시간과 장소는 반려견 순찰대 앱을 통해 기록하고 할당량 없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60마리 엄격한 심사 22마리 합격

11일 발대식 갖고 치안활동 시작

야밤 시설물 파손 등 ‘때의 눈’ 감시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뒤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안산·과천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해 8월 모집을 시작했고 지난 11일 발대식을 갖고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순찰대 역할은 범죄자를 쫓거나 치안을 퇴치하는 일이 아니다. 안전시설물 파손 여부와 주취자를 발견하면 신고 등을 하는 치안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견종이 아닌 소형견들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강아지에 한해 2차로 외부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앉아, 기다려’와 같은 주인의 기본적인 지시를 잘 따르는지, 차분하게 잘 기다리는지, 외부 자극에 침착하게 반응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18일 광주시 북구 문화근린공원에서 반려견 순찰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해 첫 모집에 60마리가 지원했지만, 이중 합격 조끼를 입은 강아지는 22마리뿐일 정도로 엄격한(?)심사가 진행된다.

이씨 모녀는 이날 7번째 순찰에 나섰다. 순찰대원인 송송·봉봉이도 보호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공원 곳곳의 냄새를 맡았다.

이씨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좋지 않은 시선과 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힘든 점 중 하나”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우리동네 치안도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봉봉·송송이와 함께 공원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며 산책하던 시민들은 “귀엽다”며 관심을 갖고 “순찰대 옷을 입고 있는데, 혹시 무슨 활동이냐”며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인(여)씨의 반려견 망고도 3kg의 작은 체구지만 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용맹하게 짖고 공원 곳곳 냄새를 맡으며 순찰에 참여했다.

김씨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를 시작하면서 산책 이상의 책임감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반려견과 함께 순찰대 조끼를 입고 동네를 걷다 보면 마치 방범대원과 같이 주변을 더 살피게 되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도 둘러보게 된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반려견 뿐 아니라 주인도 순찰대원의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무래도 이전보다 주변을 더 잘 세심하게 살피게 되는 것 같다. 걸다가 땅이 움푹 꺼진 곳이 있는지, 산책로 주변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등 단순 산책에서 그치지 않고 내 주위를 둘러본다는 점에서 일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BTS 일본 팬들이 만든 ‘희망 조형물’ 그룹 BTS의 제이홉 일본 서포터즈인 ‘HOPE-FULL PLACE’의 ‘희망 상징 조형물 기탁식’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렸다. 기탁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팬들이 조형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헌법재판관 후보 김성주 판사 소신판결 주목

익산약촌 살인사건 재심 무죄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진보적 판결 다수

김성주(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가 내린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놓은 법관으로 회자된다.

대표적 판결은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재심 사건이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부터 선고까지 주심을 맡았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A(당시 16)씨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B 택시기사(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입수되는 등 의혹이 일어 재심이 열렸

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 대학 의대생 강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 의 집행유예를 깨고 이례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자행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로스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수험생이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달라는 내용의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남대 측은 거부했고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 김 판사의 판결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로 꼽힌다.

지역의 한 판사는 “김 판사는 강단 있고, 지역에 애정이 많은 법관”이라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5년간 싱크홀 104곳... 보수 13곳 재침하

광주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지역에서 다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104곳을 조사한 결과 20곳의 의심장소를 발견해 위험도가 높은 13곳을 복구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지역 싱크홀 발생지역을 점검했다. 최근 서울

연희동과 부산에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은 20곳의 의심장소를 발견해 광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지표투과 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통해 13곳(제봉로 5곳, 문화소통로 2곳, 월드컵 4강로 1곳, 사암로 3곳, 용아로 2곳)에서 텅 빈 공간을 발견했다. 탐사한 장소에 침하 위험이 있어 채움재 및 아스콘을 사용해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의원이 상·하수관로 통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20년 이상 노후관로 매설 비율이 60%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3번째로 높았다.

광주의 하수관로(4473km) 중 64.9%(2903km)가 20년 이상 지났고, 상수관로(4029km) 중 54.9%(2212km)가 2002년 이전에 매립됐다.

최근 5년간 광주시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154건) 다음으로 많은 10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서 경찰관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10시간만에 검거

나주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10시간 만에 검거됐다.

나주경찰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붙잡히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

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경찰차량으로 호송된 A씨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나주경찰서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10시간여만인 17일 오전 8시 30분께 주거지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평 국화의 겨울 이야기

국향대전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0.18.(금) - 11.03.(일) 함평 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